

기후 정책에 있어서 '최악의 성과'를 보인 한국과 일본의 철강 분야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철강 분야 기업들은 같은 분야의 글로벌 경쟁 기업들에 비해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관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기준으로 산업계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A (가장 긍정적)에서 F (가장 부정적)의 단계로 측정하는 '인플루언스맵'의 분석에서, 일본의 '일본제철'과 'JFE스틸'은 기후 정책 관여 활동에서 각각 D-와 E+ 등급을 기록하는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한국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앞서 언급한 일본의 기업들보다 약간 나은 기록을 보였지만, 두 기업 역시 성과 지표에서 D등급을 기록했다. 이 등급은 두 기업이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와 불일치하는 부정적인 기후정책 관여활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관여활동을 한 한국과 일본의 철강 분야 기업들은, 부동산, 건설, 기계 분야를 비롯한 많은 철강 분야 고객사들의 강력한 기후 행동 전략과 상충된 행동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각 정부의 강력한 대응정책을 지지하는 고객사들의 입장과 대비된다. (하단의 사분면 그래프 참고)

더 나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스코프3(Scope 3)까지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철강 분야의 고객사들에게 탈탄소와 기후 정책 지지에 대한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인플루언스맵'의 이 분석은 **기후행동 100+(CA100+)**에 포함된 여덟 개의 철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추가로 현대제철과 JFE스틸도 분석 대상 그룹에 포함시켰다.

이 분석은 한국과 일본의 각 철강 분야 기업들과 더불어 철강 산업 협회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철강협회(JISF)'와 '한국철강협회(KOSA)'는 유럽과 미국의 철강 협회와 비교해, 기후 정책 관여 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산업 협회로 등급이 매겨졌다.

한국의 두 철강 기업의 직·간접적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은, 그들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과 상충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기업 모두 기후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했지만, 두 기업 모두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을 비롯한 주요 기후 관련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앞서 언급한 두 기업과 비교해 주요 기후 관련 정책에 보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쳤다. ‘한국철강협회’의 이러한 입장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기후 정책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철강협회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킨다. 특히, 한국철강협회의 회장직을 맡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인플루언스맵’의 장유나 한국 팀장은, *“한국의 철강 업계는, 업계가 수출집약도가 높고 국제적인 경쟁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을 주기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는 이를 더 높은 기후 규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부여하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언스맵의 이번 분석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철강 업계가 그들의 중요한 글로벌 고객사의 강한 기후 정책 의지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며, *“한국과 일본의 철강 기업들은 강한 기후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로 그들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철강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현재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글로벌 철강 분야 전환의 흐름에 뒤쳐지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재고해봐야 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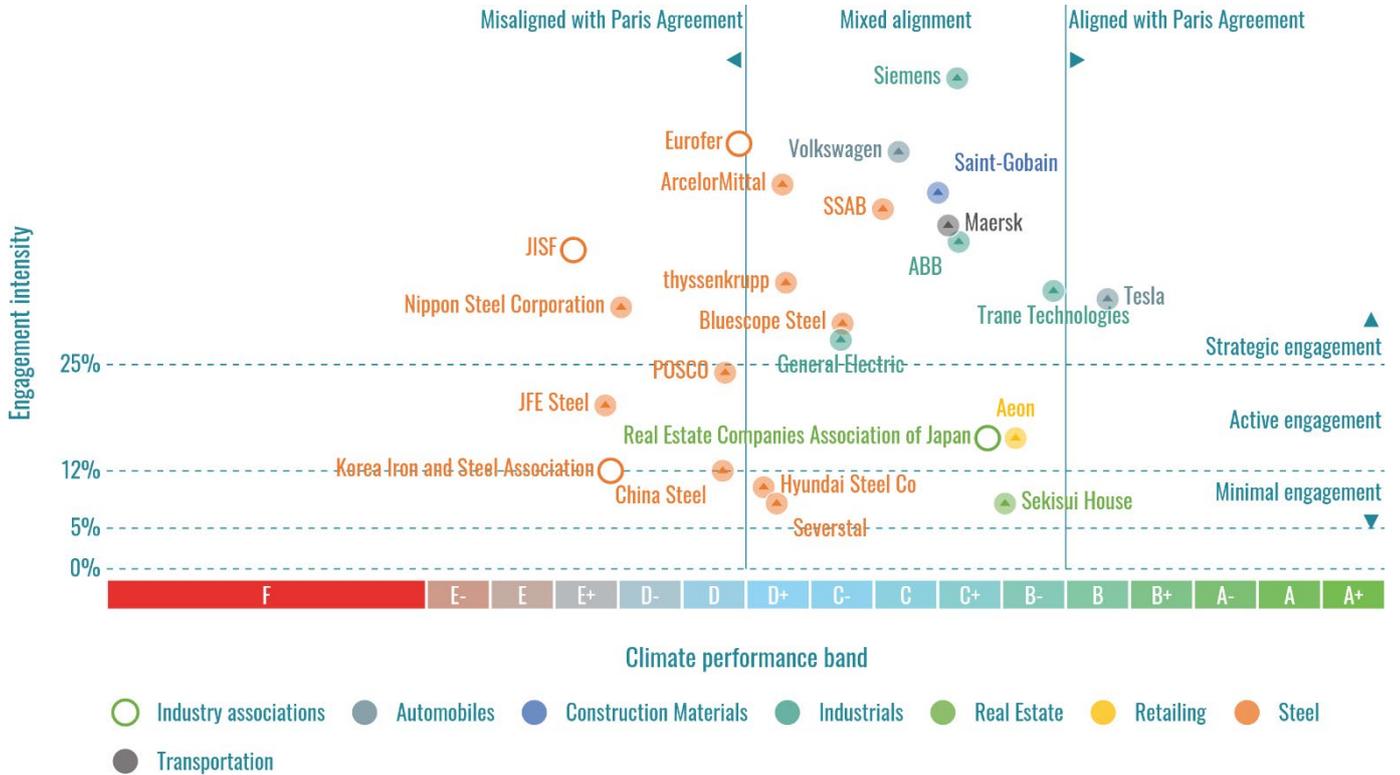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제철’, ‘JFE스틸’과 ‘일본철강협회(JISF)’가 투자와 철강 업계의 탈탄소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 R&D를 제외한 일본 정부의 모든 기후 관련 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일본의 두 철강 기업과 ‘일본철강협회’는, 일본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으며, 탄소세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한 일본의 국내 탄소 가격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또한, ‘일본제철’과 ‘일본철강협회’는 원자력과 화석 연료를 에너지 믹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가격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종종 표해 왔다.

‘인플루언스맵’의 나가시마 모니카 일본 팀장은, *“일본의 철강 업계는 기후 정책 관여 활동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현저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철강 업계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은 일본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며, "이들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은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탈탄소화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일본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철강 밸류 체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 지표



전체 원문을 보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인터뷰를 위한 더 자세한 정보는:

장유나 (Yuna Chang), 한국 팀장, 인플루언스맵 (런던)

yuna.chang@influencemap.org

나가시마 모니카 (Monica Nagashima), 일본 팀장, 인플루언스맵 (도쿄 지부)

monica.nagashima@influencemap.org

사이먼 컬렌 (Simon Cullen),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인플루언스맵 (런던)

simon.cullen@influencemap.org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에 대하여

인플루언스맵은 런던에 위치한 싱크탱크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에너지와 기후 변화 관련 이슈 분석 결과를 투자자, 기업, 그리고 정보 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후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인플루언스맵의 분석 결과는, 글로벌 기후행동 100+ 투자기관 모임을 비롯한 투자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스맵의 연구원들은 런던, 뉴욕, 도쿄, 그리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